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최근에 하락세 두드리져 독일선주 3,500TEU급 4,500만\$에 중국에 발주

최근들어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 하락추세가 두드리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독일선주는 중국 상해의 한 조선소에 3,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발주했는데, 이들 선박의 척당 선가는 금년 초보다 약 17% 가량 하락한 4,500만달러로 알려졌다. 1TEU당 선가는 1,800달러 수준이다.

컨테이너 해상물동량은 중국의 춘절(구정월) 이후 견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름철의 피크시즌을 앞두고 선박수급이 타이트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대형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신조선의 준공량 급증을 염려하는 비관적인 견해가 해운·조선업계에 널리 확산되면서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중국 조

선소의 컨테이너선 수주경쟁도 선가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선관계자들에 의하면, 독일선주가 발주한 3,5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은 각각 2009년 9월과 12월에 준공되는데, 2개월전에 발주된 동선형의 신조선가는 척당 5,4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이 선박을 수주한 중국의 상해징서조선의 컨테이너선 신조 수주잔량은 3,500TEU급의 경우 2006년 준공예정인 독일선주 슈르테의 1척과 2006-2007년 준공예정인 APL 4척, 2007년 준공예정인 MSC 2척, 2007-2008년 준공예정인 독일선주의 5척, 2009년에 준공되는 선주불명의 3척 등 2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7,000TEU급 2척도 2007-2008년에 준공된다.

지난해 일본 항만 수출입컨테이너물 처리실적 최고치 전국항만 처리량 1,578만TEU로 전년비 5% 증가

지난해 일본의 항만에서 처리된 수출입컨테이너화물량이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토교통성 항만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65개 항만에서 처리된 수출입컨테이너화물(공컨테이너 포함)은 수출 784만TEU, 수입 794만TEU 등 모두 1,578만TEU로 지난 2004년에 비해 5.3%가 증가하는 등 2년 연속 1,500만TEU를 넘어섰다.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 오사카 등 5대항에 하카타, 시미즈, 기타큐슈를 포함한 주요 8개항만의 처리물동량이 2004년 실적을 웃돌았으나, 지방항에서는 전체의 반수 가까운 26개항이 전년실적을 하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일본의 항만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을 보면, 도쿄항의 경우는 359만3,751TEU를 처리하여 전년 대비 7.0% 증가했으며, 이어 요코하마 272만6,572TEU로 4.6%, 나고야 230만7,150TEU로 7.0%, 고베 188만4,653TEU로 2.0%, 오사카 180만2,309TEU로 4.4%, 하카타 62만1,068TEU로 8.8% 등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